

전북도, 2026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돌입

국회단계 증액 ‘상주반’ 운영 가동
기재부·핵심 인사면담 쟁점 설득
70대 핵심사업 반영 ‘원팀’ 전략
상임위·예결소위 맞춤형 병행

전북도가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도는 16일 도청에서 김관영 지사 주재로 행정·경제부지사, 정무수석,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예산 국회단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본격적인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가 시작되기 전, 도정 핵심사업에 대한 반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안 단계에서 과소·미반영된 70대 중점 사업에 대한 국회 단계 증액 추진 상황과 대응 계획이 논의됐다.

도는 국회단계 예산 증액을 위해 서면질의서 작성과 감액 방어자료 마련 등 실무 중심의 대응 사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휘부가 직접 기재부 및 국회 주요 인사를 만나 증액의 필요성을 설득한다.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과 협력 강화하는 정치권 공조 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쟁점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전



전북, 내년도 국가예산 국회단계 총력 가동
도는 16일 도청에서 김관영 지사 주재 행정·경제부지사, 정무수석,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예산 국회단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전북자치도>

략회의를 정례화하고, 오는 27일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 시까지 도 및 시군 국회 상주반을 운영해 실시간 심사동향 파악과 즉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기재부 장관, 제2차관, 예산실장, 예산심 의관 등과의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이어 예결위 위원장·간사·소위 위원, 국회의장, 원내대표 등 핵심 인사

와의 면담을 통해 전북 주요 사업의 증액 타당성을 집중 설명한다.
상임위별로는 맞춤형 전략을 병행해 상임위 단계에서 감액 위험을 조기 차단하고, 예결소위 단계에서 증액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달 30일에는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 대상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역대 최대 국가예

산 확보를 위한 원팀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회단계는 국가예산 확보의 마지막 관문인 만큼,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도정 핵심사업의 반영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며 “남은 기간 전 조직이 비상 체제로 임해 최선의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재생에너지 사업 지연 미활용 전력망 신규 원전 맞먹어”

평균 지연기간 풍력 6년 달해
RE100 산단 등 전환 차질 우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한국전력공사 전력망 사용을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명목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뒤에 사업 지연으로 미활용되고 있는 전력망 규모가 신규 원전 16호기의 발전 규모인 1만6천MW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과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개시일을 초과한 발전사업은 총 393건(16,208MW)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원별로 풍력 8,474MW, 태양광 3,982MW, 열병합 1,844MW였으며, 평균 지연일수는 풍력 1,964일, 연료전지 1,206일, 태양광 1,067일, 열병합 523일이었다. 즉 미사용 용량 중 상당수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된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수익성 악화나 자본 부족으로 인한 사업 철수가 잦아, 다른 발전사업보다 지연 사례가 많은



안호영 의원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평균 지연기간이 6년에 이르는 풍력발전의 경우, 주민 수용성 문제·지자체 인허가 장벽 등에 가로막혀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전력망만 선점하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한전이 회수 및 재배분 기준을 마련해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한전은 알박기 사업자 관리기준을 강화해 2024년 하반기부터 알박기 용량에 대한 회수를 본격화했으며, 용량 회수로 확보한 약 5.0GW는 준비된 사업자와 신규사업자에게 재배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안 의원은 “전력계통을 미리 확보한 사업자들의 운영이 지연되며 신규사업자 진입이 막혔고, 수급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며 “이제명 정부가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한전 차원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남원의료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체계 구축

전북도 사업 수행기관 선정
응급실 처치부터 원스톱 지원
정신건강센터 연계 1달 이상 관리

전북도는 남원의료원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2025년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신규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정신건강 치료와 상담 서비스로 연계해 재시도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응급의

료와 정신건강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해 자살위험군을 조기에 개입·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원의료원은 응급실 내원 환자에게 응급처치뿐 아니라 초기상담, 정신과적 평가, 단기 사례관리 등을 실시한다. 이후에는 지역 및 권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최소 1개월 이상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병원 내에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사례관리 인력을 배치했다.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함께 참여해 응급실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췄다.
이번 선정은 전북도와 남원의료원이 협력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협약한 결과다. 도는 앞으로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기협의회를 통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에서는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등 4

곳이 해당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며, 지난해 1,152명의 자살시도자가 이들 병원 응급실을 통해 치료·관리를 받았다. 남원의료원이 새로 참여함으로써 도내 5개 기관이 자살시도자 초기 개입과 사후관리의 거점 역할을 맡게 됐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응급실은 자살위험군을 가장 먼저 만나는 최전선”이라며 “남원의료원과 긴밀히 협력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선관위, 법인자금 정치기부 업체 대표 검찰 고발

300만원 의원 후원회 기부 혐의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자금으로 특정 국회의원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모 업체 대표 A씨를 지난 1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업체 명의로 300만원을 특정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했으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부터 법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반환 받은 당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모 업체 자금 300만원을 다시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후원회 회계보고 조사에서 드러났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제2항에서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의 명의로 기부를 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일 경우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 문화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 틱스 연계 기술창업 기업 64개社 집중 육성

민간주도형 창업 활성화 지원
도지원에 초기 벤처 투자금급속
양적·질적 성장 성과 두드러져

전북도는 2025년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6개 틱스(TIPS) 운영사와 손잡고 64개 기술창업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16일 밝혔다.

틱스(TIPS)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투자사가 유망한 창업기업에 먼저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정부가 최대 17억 원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술창업 기업이 초기에 겪는 '데스밸리(성장 정체기)'를 넘기도록 돕는 대표적인 창업 지원정책이다.

전북은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틱스

운영사가 없어 지역 창업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2023년부터 운영사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해 틱스에 도전하도록 돕는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활성화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3년 20개, 2024년 40개, 2025년 64개 등 틱스도전 기업이 확대와 함께 도내 기술창업기업의 틱스 진출을 뒷받쳤다.

최근 대외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 리스크가 높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그간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전국 초기단계 벤처투자 자금은 2022년 2조 50억 원에서 2024년 1조 2,633억 원으로 37% 급감했지만, 도내 틱스선정기업은 같은 기간 2개에서 22



전북도는 6개 틱스(TIPS) 운영사와 손잡고 64개 기술창업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틱스 도전 우수성과기업 파마로보틱스의 제품. <사진=전북도>

개로 11배나 늘었다.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향상도 눈에 띈다. 2024년 틱스 도전기업으로 육성된 파마로보틱스, 에이티비랩, 지티에이 에어로스페이스, 주미당 등은 틱스뿐만

/장정철 기자

한병도 “비위 경찰증가…시민감찰위 유명무실”

시민감찰위 구성 후 회의 없어
한 의원 “고강도 대책 내놔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비위 경찰관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외부에서 감시감독하는 시민감찰위원회의 활동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찰공무원 징계 건수는 2021년 493건, 2022년 471건, 2023년 486건, 2024년 536건으로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며 이같이 공개했다.

이어 지난 2012년부터 감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설치한 시민감찰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1년 22건에서 2022년과 2023년 21건, 2024년 15건, 2025년 상반기 1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감찰위원회는 본청과 시도경찰청별로 설치돼 2개월마다 1회 회의를 열고, 금품·향음 수수, 공금횡령, 성희롱·성폭력 등 경찰관 비위 사건을 심의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심의 대상 사건은 2021년 119건에서 2024년 181건으로 증가한 반면, 실제 심의 건수는 2021년 24건에서 2024년 6건으로 줄었고,



한병도 의원

기 만료 후 2기 협의회 출범 없이 사라졌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 2019년 시민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시민청문관’ 제도를 도입했으나, 2020년 274명이던 정원이 2025년 7월 61명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매년 실시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고, 특히 청렴노력도는 2021년 1등급에서 2024년 3등급으로 곤두박질쳤다. 경찰청이 사실상 내부 비위 자정작용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의원은 “매년 ‘부패와의 전쟁’이라면서도 일시적·면피용 대책을 내놓으니 낮 뜨거운 비위가 반복되는 것이다”라며, “경찰청이 연구적이고 구속력 있는 고강도 반부패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국제첨단소재기술대전서 새만금산단 매력 선포

코엑스 첨단소재기술대전 참여
국제기업 대상 새만금 투자 홍보
세제 혜택 등 강점 집중 부각

전북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13회 국제첨단소재기술대전에 참가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소재경제신문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첨단소재 산업 전문 박람회로, 10,368㎡ 규모 전시장에서 국내외 150개 기업이 참가하고 이 중 37개는 해외기업으로 구성되는 등 글로벌 기술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행사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새만금 국가산단 공동홍보관’을 운영하며 현장에서 투자여건, 인프라, 인센티브 등을 소개하고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투자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RE100 산단 지정을 추진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이 국내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갖춰 글로벌 기업의 ‘탄소중립 생산기지’로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지정된 이차전지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 R&D 지원 등 강점을 함께 부각해 글로벌 첨단소재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유인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전북도는 행사에 앞서 홍보 브로셔, 영상, 기념품 등을 제작해 현장에서 배포하고,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도 강화해 투자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경량화 소재, 복합재료, 고기능 플라스틱 등 첨단소재 전 분야의 최신 산업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전북도는 새만금의 우수한 입지 경쟁력과 에너지 인프라, 확장 가능성을 적극 알리며 기업 접점을 확대해 나간



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13회 국제첨단소재기술대전에 참가해 새만금산단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사진=전북도>

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 첨단소재산업의 최신 흐름을 파악하고, 새만금 국가산단의 우수한 입지와 투자 여건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것이다”며 “첨단소재 분야의 유망 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새만금을 첨단소

/장정철 기자

박희승 “영유아 10명 중 2명 건강 관리 필요”

1차 건강검진 수검률 55% 불과
시행기관 확대·안내 강화 필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10명 중 2명은 주의나 정밀평가 등 관리가 필요한 등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각 월령별 총 8차례에 걸쳐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사항을 무료로 점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건강검진을 받은 영유아 110만 7,838명 중 ‘주의’ 9.6%, ‘정밀평가필요’ 7.3%, ‘지속관리필요’는 1.4%로 나타나 약 10명 중 2명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함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20년 83%에서 지난해 79%로 하락했다. 이를 차수별로 보면 2024년 기준, 짧은 검진기간(생후 14일~35일)으로 검진 안내기간이 촉박한 1차 건강검진의 수



박희승 의원

검률은 55.5%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수검률은 지난해 1차 수검률은 경북(71.4%)이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경남(69%), 대구·대전(68.9%) 등은 비교적 양호했으나, 강원(48.6%), 서울(49.4%), 경기(50.0%), 전남(50.4%) 등은 절반 남짓밖에 검진을 받지 않았다.

올해 8월 기준, 국가검진검진 지정기관 3,793개소 중 영유아 검진을 실시한 기관은 1,665개소(43.9%)에 불과하다. 인천(35.6%)이 가장 낮았고 대구(38.0%), 경기(40.9%) 순이었다.

박 의원은 “더 많은 곳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기관이 저조한 요인 등을 살피고, 비용 부담도 없는 만큼 기간 내 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윤준병 “5년여간 해경 압수 마약 2.4톤, 전 국민 투약하고도 남아”

지난해 해경 압수 마약류 검정 2배
윤 의원 “해경 단속인력 증원해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최근 5년간 해경이 압수한 마약이 2.4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투약하고도 남을 정도로 마약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경이 지난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5년

간 압수한 필로폰, 대마, 코카인 등 마약류(양귀비 제외) 압수량은 총 2,357.6kg이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압수한 마약은 유형별로 코카인이 2,347.22kg으로 월등히 많았고, 대마가 9.5kg, 필로폰이 0.61kg 순이다. 이외에 합성대마, 케타민, 아바 등과 같은 마약류도 2.29kg이나 차지했다.

지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서 국의 벌크선에 불법마약류 코카인 1.7톤을 밀

반입하다 14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해경이 지난 5년간 압수한 필로폰과 코카인은 1인 1회 투약량(0.03g) 기준으로 5,666만여 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다.

2024년 국내 마약류 압수량 1,173kg 가운데 해경이 단속한 양은 약 614kg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해경 전담 수사관 26명이 472명을 검거해 1인당 약 18명을 단속했으며, 이는 검찰 318명

(1인당 3.5명), 경찰 369명(1인당 36명)과 비교할 때 압수량 비중이 높고 단속 효율도 높은 편이다.

윤 의원은 “국내 마약류 대부분이 항공과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바다를 통한 밀반입의 경우 단 한 건으로도 대규모인 경우가 많다”며 “해경의 마약 단속 인원을 대폭 늘려서라도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농협, ‘농심천심’ K-라이스페스타 연계

브랜드 히트상품 개발 박람회 등 지원...전북 로코노미 경쟁력 제고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15일 전북본부 회의실에서 '전북 구경브랜드 간담회'를 열고, 전북 로코노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행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구경브랜드 참여 농협 9개소 책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 핵심의제는 △'25년 전북구경브랜드 사업 마무리 계획 점검 △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 연계 실천방안 구체화 △K-라이스페스타 연계 방안 논의 등이다.

특히 '농부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라는 취지의 농심천심 운동을 구경 브랜드 메시지·패키지에 일관되게 녹여 소비자에게 공감형 스토리텔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전북농협은 참여 농협 9개소와 함께 브랜드 히트상품 개발, 대형 식품 박람회 참가, 신규 온라인 채널 입점 등을 통해 상품화·판매·마케팅 등 사업전반 원스톱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 농협 9개소(상품)는 전주(쌀가공품), 공덕(고구마가공품), 군산원에(팜뽕라면), 대성(땅콩), 동김제(떡볶이), 익산(잡쌀떡), 임실치즈(치즈&요거트), 해리(소금) 등이다.

이정환 전북농협 본부장은 "전북 구경브랜드 활성화는 농심천심운동의 핵심과제입니다"며 "앞으로도 전북 농업인의 땅과 정성이 깃든 농산물가공품에 브랜드 가치를 더해 소비자에게 신뢰와 감동으로 다가가도록 전북농협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전북 구경(9慶) 브랜드 지원사업은 전



전북농협은 지난 15일 전북본부 회의실에서 '전북 구경브랜드 간담회'를 열고, 전북 로코노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행과제를 논의했다.

북 농식품 상품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높인다는 전북농협의 의지가 담겨 있는 유망하는 행위인 구경을 통해 완성도 높은 히트상품 9가지를 발굴해 축하를

/정혜민 기자

가스공사사업협의회-전북도, 군산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

노후 보일러배관 교체 등 4천만원 규모 사업 추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공사사업협의회(회장 김영태)와 전북특별자치도(회장 유제영)는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기)과 함께 지역 내 사회취약계층과 학생 취약계층 가정의 가스안전 환경 개선을 위해 총 4천만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은 지역 내 노후 가스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취약계층과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노후 보일러 및 배관 교체, 가스타이머 꼭 설치, 가스 공급시설 신설, 안전점검 및 시설 보완 등 군산지역 사회취약계층의 노후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진행할 예정이다.

본 행사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김영태 가스공사사업협의회 회장, 유제영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이성기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사회취약계층 및 학생 취약계층 가정의 가스안전 개선사업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영태 회장은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과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가스공사 업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반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제영 회장은 "회원사들의 기술과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협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성기 교육장은 "협회의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사업이 학생들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공사사업협의회와 전북도회는 전북도군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내 취약계층 가정의 가스안전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주민 모두의 안전의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육지원청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사업은 2023년부터 3년

/정혜민 기자

농촌진흥청 ‘스마트팜 청년 창업농 안정 정착’ 모색

청년 창업 농가 방문 안정 지원책 등 의견 나눠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중점 추진 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5일 전남 영암에 있는 무화과 스마트팜 청년 창업 농가를 방문, 운영 현황을 살피고 안정 지원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한 청년 창업 농가는 지난해 스마트팜을 구축한 후 무화과를 재배해

백화점,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 청장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에서 무화과가 재배되는 현황을 둘러보고 농장 운영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

이 자리에서 농가 대표는 청년 창업 농, 귀농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이 꾸준히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에 공감하며, 스마트팜 도입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을 줄이는 방법과 생육 관리 데이터 분석·활용 교육 지원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의

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은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스마트팜 융합 모형을 적용하면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설치비 부담을 줄이고, 개별 스마트팜 기술을 골라 적용하거나 묶음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 기술이 보급되면 스마트팜 환경 관리 지능화, 농작업 자동화, 에너지 최적화를 구축해 작물 생산성과 농가 소득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환

경 관리, 작물 생육 자동 계측, 병해충 예찰과 진단, 에너지 모니터링 기술 등을 상용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귀농인, 청년창업인, 초보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팜 융합 모형을 개발해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이 모형을 적용하면, 우수 농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작물을 관리할 수 있어 높은 소득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혜민 기자

전북대병원,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인식 제고

지역 병의원 의료진 대상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연수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전북 지역 의료진을 대상으로 '2025 전북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이 주관한 이번 연수강좌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보건 위기로 대두되는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 제고와 올바른 항생제 사용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 지역 병원 의료진과 전북대병원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강좌 내용은 △성인·소아 초기 경험적 항균요법 △배양검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변경 △해외 의료기관의 ASP팀 운영 사례 등으로 각 분야의 전북대병원 교수진의 전문 강의가 이어졌다.

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사례와 고민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김인희 진료부문 부원장은 "항생제 내성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가 직면한 공중보건 과제"라고 말했다.

또 "이번 연수강좌를 통해 올바른 항생제 사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지역 의료진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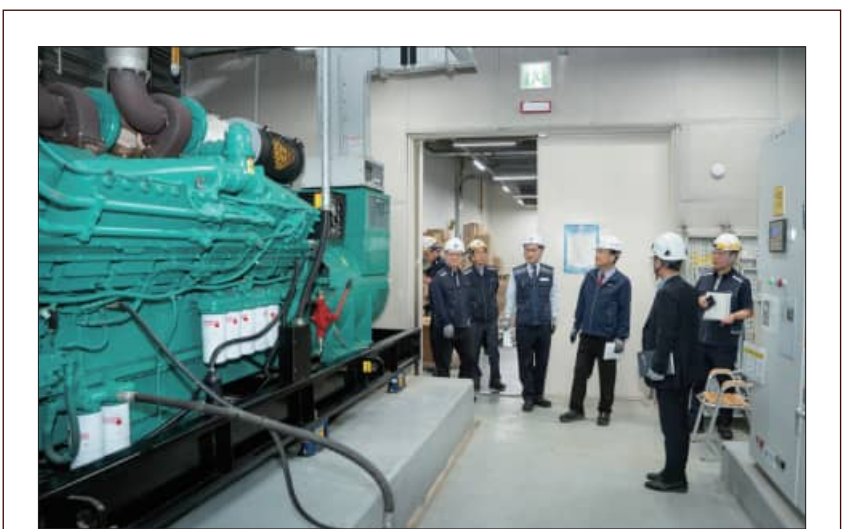
양종철 병원장은 "전북대병원은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항생제 내성 대응과 적정사용 관리체계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이 전북 지역 의료진을 대상으로 '2025 전북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어 "이번 연수강좌를 계기로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협력해 안전하고 책임 있

/김영태 기자



전기안전공사, APEC 정상회의 비상체계 유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15일 경북 경주시 일대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위한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정상회의의 동안 국내외 주요인사와 방문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전기안전공사는 △행사장 내·외부, 회의장·숙박시설 전기설비 상

태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긴급 대응 체계 확인 등을 진행했다.

또 정상회의의 동안 APEC 종합상황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24시간 비상출동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사 전까지 빈틈없는 현장점검과 선제적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국민연금공단-서울성모병원, 장애정도심사 협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장애 정도심사에 필요한 의료자료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16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원장 이지열)과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장애정도심사 보완자료를 서울성모병원에 전자적으로 요청하고 수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장애정도심사 보완자료는 민원인이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거나, 공단이 병원으로부터 우편으로 수신해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이러한 절차가 전자화되면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 과정이 크게 간소화되고, 민원인의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

다.

또 공단은 국내 5대 의료기관인 서울성모병원과 협약을 계기로, 동일한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7개 병원과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약 23만 건의 장애정도심사를 통해 15만여 명을 신규 등록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국내 최대 의료네트워크를 가진 병원과 협력인 만큼,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장애정도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연금공단과 진료정보 교류가 한층 효율화돼,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신뢰성 높은 장애정도심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전북조달청 '레이콘' 제조현장 품질점검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항수)은 16일 익산시에 소재 (유)토석산업(대표 김병찬)을 방문해 주요 관급자재인 레이콘의 품질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KS 기준에 따라 생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진행했으며 △품질 관리 실태 △계약규격 준수 여부 △배합비율 확인 등 레이콘의 품질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레이콘은 건축물의 안전성에 직결되는 중요 자재로 생산공장부터 납품현장까지 철저한 품질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철저한 품질점검을 당부했다.

/정혜민 기자

정읍 학교 밖 청소년들, 특별한 '수학여행' 떠난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추억 여행이 마련된다.

정읍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오는 21일, 22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 군산과 서천으로 '2025년 꿈드림 수학여행'을 떠난다고 밝혔다.

이번 수학여행은 김정고시 준비나 자격증 취득 등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잠시 쉼표를 선물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를 경험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이날 청소년들은 군산과 서천 일원을 방문해 △선유도 명사십리 해변 체험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람 △서천스카이워크 및 송림산림욕장 체험 △브라운즈 송림동화 관람 등 다채로운 관람과 체험활동을 접할 예정이다.

이번 수학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청소년 여행지원 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 청소년들에 대한 중식비와 체험비를 무료 지원받고 교통비, 보험료 등은 시 지원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서로 협력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보리·밀 등 맥류 적기 파종·종자 소독 당부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이하 '센터')는 보리, 밀 등 맥류의 안정 생산을 위한 적기 파종과 종자 소독을 16일 당부했다.

센터는 보리와 밀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본잎이 5~6개가 돼야 안전한 월동이 가능하다는 점,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파종 시기가 7일 정도 늦춰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 지역의 파종 적기는 10월 하순~11월 상순이다.

만약 맥류를 일찍 파종하면 겨울을 나기 전에 줄기 안에서 이삭이 자라버려 병해를 받기 쉬우며, 너무 늦게 파종하면 싹트는 시기가 늦어져 충분히 자라지 못한 상태로 얼어 죽거나 생산량이 떨어지는 만큼 적기에 파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종량은 10a(300평)에 16~20kg이 적당하며, 파종 시기가 늦어질 경우에는 양을 20~30% 늘리는 것이 좋다.

박용우 기술보급과장은 “보리나 밀을 재배할 때 수확량 감소의 주원인은 동해나 습해, 병해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적기 파종, 종자 소독, 배수로 관리 등을 꼭 실천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해수부, 아동양육시설 일액원에 성금·기부 물품 전달

군산시는 해양수산부, 수협은행 본점과 함께 군산시 아동양육시설 '일액원'을 찾아 성금과 기부 물품 500만 원 상당을 16일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강임준 시장, 해양수산부 홍래형 수산정책실장, 신학기 수협은행장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시설 운영상황과 아동들의 생활 현황을 청취하고,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성금과 기부 물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성금과 기부 물품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은행 본점에서 마련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주관 지방상생 자매결연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해양수산부와는 상생협력에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시민화합대축전’ 열기 이어가

공연·강연·전시 할인행사 등 도심 곳곳 축제 분위기

익산시 '시민화합대축전'이 반환점을 돌며 도심 곳곳이 흥겨운 축제 분위기로 물들고 있다.

익산시는 이리시·익산군 통합 30주년을 기념해 10월 한 달간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민화합대축전'을 이어가고 있다.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민화합대축전은 지난 2일 시민화합가요제를 시작으로, 시민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화려한 개막을 알렸다.

특히 지난 3~5일 열린 마한문화대전과 KBS전국투어콘서트는 곳은 날씨에도 2만 3,0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하며 익산의 문화 저력을 보여줬다.

시는 시민화합대축전 기간 지역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익산 다이로움'은 10월 한 달간 충전 한도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충전 인센티브율을 13%로 조정했다.

또 익산 전역 13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통합 30주년을 기념해 지질별로 과일, 채소, 가공식품 등을 9%에서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며 가정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있다.



익산시는 이리시·익산군 통합 30주년을 기념해 10월 한 달간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민화합대축전'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익산시>

시민화합대축전은 10월까지 다양한 문화 행사와 이벤트가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선 매주 금요일 모현공원, 유전생태공원, 중앙체육공원 등에서는 익산시립예술단의 상설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또 오는 18~19일에는 '반려동물 문화축제' 및 제19회 익산 FCI 국제 도그쇼'가 모현공원에서 진행된다.

21일에는 김미경 강사가 '가족사랑 대화법'을 주제로 시민 강연을 펼치며, 백제왕궁박물관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23일부터는 마동공원 익산생활문화센터(수립재)에서 민간기록물 수집 전

시회가 열려, 시민들이 직접 수집한 생활문화 자료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시민화합대축전의 피날레는 오는 24일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되는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장식한다.

가을 하늘 아래 피어난 국화꽃이 도심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시민화합대축전의 대단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시민화합대축전이 반환점을 돌아 절정을 향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 시민 여러분께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기업인과 함께하는 ‘군산 타운홀미팅’

기업 지원 정책 의견 수렴 등 산업 발전 소통

군산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업인과 함께하는 군산시 타운홀미팅'을 16일 오후 3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대표, 관계자,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이 참석했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기업인들은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군산시의 산업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군산시는 △ RE100산단 지정 △ 이차전지 폐수처리장 △ 군산조선소 등 지역 현안사항과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미팅에 참석한 기업관계자는 “기업 경영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모두가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 군산시에서 기업인들을 위

한 정책을 더 확대해 주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군산시 산업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번 타운홀미팅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첨단 관수시스템 축산 농가 ‘주목’

날씨 걱정 없이 연중 사료작물 안정적 생산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에도 고품질 사료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정읍에 도입돼 축산 농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16일, '가뭄대응 사료작물 안전재배 단지육성'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현장 평가회를 열었다.

북면의 시범사업장에서 열린 이날 평가회에는 농업기술센터·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관계자와 지역 농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가뭄 대응 기술이 적용된 목초지를 직접 둘러보고, 향후 기술 확산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에 맞서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총사업비 1억 6000만원을 들여 2개 농가에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신기술을 보급했다. 스프링클러 4대로 2ha에 달하는 넓은 목초지에 자동으로 물을 뿌리는 관수시스템과, 수분 20% 이내의 고품질 건초를 생산하는 열풍 건조기가 핵심이다.

특히 사업대상자인 손영수 농가는 전

국 최초로 '자유방목형 한우 동물복지' 인증을 받고 100% 목초만으로 소를 키우는 선도 농가다.

손 씨는 “새로운 관수시스템 덕분에 날씨 걱정 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고품질 사료작물을 생산해 소에게 먹일 수 있게 돼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료작물 생산 기반을 다진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토양 분석 지원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하반기 추가 신청

상반기 미신청자 대상 20~31일까지 접수

익산시는 농민공익수당 하반기 추가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가 접수는 영농철 바쁜 일정으로 당초 신청 기간 3~6월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배려한 조치다.

신청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농업인 또는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업인이다. 또한 경작 면적이 1,000㎡ 이상이고, 전전년도 기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는 제도 요건이 완화돼 국내 거주 기간과 경영체 등록 요건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었으며, 지급 기준도 기존 농가 단위에서 개별 농업인 단위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1인 경영체는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30만 원씩 지급된다.

시는 접수가 끝나는 대로 자격요건을 검토해 대상자를 확정할 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 공익수당이 농업인들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시민이 만드는 ‘익산 꿀잼데이’ 개최

시민아이디어 체험공연 선택

익산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문화축제가 미륵사에서 펼쳐진다.

익산시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오는 18일 미륵사지 일원에서 '시민이 만든 익산 꿀잼데이'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문화도시 익산의 대표 시민참여 플랫폼인 '문화도시 삼삼오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민들이 직접 기획한 100여 개의 아이디어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20여 개 팀이 모여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선보인다.

행사는 익산의 대표 문화유산인 미륵사지를 배경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시니어 보드 게임 대회 △가면 축제 '백제 타임슬립' △타넨저스 최강의 닭을 찾아

서 △익명소(益命所): 운명을 보다 △마룡 종이접기 대회 △경축! 익산 돌잔치 등이다. 이틀만으로도 흥미를 끄는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당일 참여자와 순위권자에게는 티셔츠로 마련한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번 익산 꿀잼데이는 이러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결실로, 시간의 노력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민아이디어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이 만든 익산 꿀잼데이는 행정이 아닌 시민이 주체가 돼 기획하고 운영하는 진정한 시민 축제”라며 “시민들의 빛나는 아이디어는 익산의 일상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원동력인 만큼 시민이 직접 만드는 문화도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청 광장, 자활생산물 판매 ‘복직’

저소득층 자립 기반 다져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착한 소비'의 장이 16일 정읍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전북 6개 지역자활센터 소속 사업단과 자활기업들이 정성껏 만든 우수 생산품을 한자리에 선보인 '2025년 자활생산물 및 반려동물 시·군 순회장터'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을 이뤘다.

전북광역자활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땀과 노력이 깃든 제품의 판로를 열어주고, 이를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터에는 생활용품·패브릭 공예품 같은 수제품부터 농특산물·생선구이·베이커리 등 맛깔스러운 먹거리가

지 다채로운 상품이 판매됐다.

특히 올해는 반려동물 인구를 겨냥해 수제 간식과 습식사료 등 펫용품도 처음 선보여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정읍지역자활센터 역시 특색있는 상품으로 힘을 보탰다.

카페보네사업단은 올해 신메뉴인 쌍화차를, 영농사업단은 갖 수확한 상추를 선보였고, 세차사업단은 세차 할인권을 판매하기도 했다. 자활기업인 샘골식품가공센터의 백미 누룽지 또한 큰 인기를 끌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장터를 통해 자활생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전북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응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시민 주도 배움 축제 열려

군산시가 오늘부터 18일까지 2일간 은파호수공원 제2주차장 일원에서 '2025년 군산시평생학습한마당'을 개최한다.

군산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진대회·평생학습 성과발표회·K-POP 공연 등 풍성한 무대 행사와 다양한 체험을 준비해,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의 즐거움을 직접 경험하며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개막식에는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평생학습 주제곡'도 공개될 것으로 보여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산시는 인공지능(AI)이 '배움'·'성장'·'나눔'이라는 평생학습의 핵심 가치를 음악으로 재해석한 이번 곡이 교육과 인공지능의 만남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평생학습을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배움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 도전, 변화의 과정들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배우고 성장해 온 시민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배움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학생승마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정읍시가 오는 22일까지 지역 초·중·고등학교 316명을 대상으로 '학생승마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스포츠 감상을 넘어,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동물과 교감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고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승마 지원사업'은 총 10회에 걸쳐 이론 수업부터 말과 친해지기, 말 끌기, 기초 승마까지 체계적인 강습으로 진행된다. 경험이 풍부한 '웨스턴스프링스'에서 운영하며, 모든 참가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특히 시는 더 많은 학생의 참여를 위해 본인 부담금을 기존 30%(9만 6000원)에서 20%(6만 4000원)로 더욱 낮췄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가정 등 사회공익승마 대상 학생은 전액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22일까지 '호스피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선착순이 아닌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공정하게 선정되며, 결과는 23일 같은 누리집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체험은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예비창업자·3년 미만 기업 대상
공간·공용시설 무료 이용 혜택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디어 우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가 입주기업 기간 만료에 따라, 입주기업을 11월 7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완주군에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또는 2022년 10월 15일 이후 창업한 3년 미만 기업으로, 완주군에 사업장이 있거나 입주 후 2개월 이내 이전 예정인 기업이면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 및 사회적 기업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예비)기업 등이다.

모집 규모는 최대 3개 업체이며, 입주 기간은 2년이고, 1년 연장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입주 가능하다. 보육실은 최종 선정 이후 상호 협의를 통해 배정된다.



완주군 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 기간 만료에 따라, 입주기업을 11월 7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완주군>

선정된 기업은 경영활동을 위한 사무 공간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공용시설(상상플래닛 카페, 세미나실, 회의실, 배움터 등)과 공용사무기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입주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서식을 내려받아 내용 작성 후 직접 방문 또는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https://wj-changup.wanju.go.kr) 또는 완주군 창업보육센터(063-290-2487~8)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서 전국 청소년 모빌리티 레이싱 대회 열린다

SW미래채움 전북센터 주관 행사
미래 모빌리티·AI 교육 체험의 장

남원시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내 배드민턴장에서 'SW미래채움(전북) 전국 청소년 모빌리티 메이커스 레이싱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SW미래채움 전북센터와 대구센터가 공동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이 후원하는 행사이다.

더불어 '2025 남원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과 연계해 미래 모빌리티와 첨단 로봇 기술이 융합된 종합 기술 축제로 진행된다.

총 22개 팀, 54명의 전국 초·중·고등학생이 이번 대회에 접수했으며, 이 중 초등부 12개 팀(34명)과 중·고등부 10개 팀(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부는 1일 과정으로, 중·고등부는 1박 2일 집중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참가자들의 수준과 집중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 참가 학생들은 팀 단위로 RC카를 직접 조립하고 코딩하여 장애물 레이스 경기에 출전한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코딩 역량뿐만 아니라 협업 능

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강화할 수 있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체험 기회 제공과 더불어 첨단 기술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SW미래채움사업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디지털 교육 확산 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가 협력해 지역 청소년의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기초 디지털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해 SW미래채움전북센터를 개소해 AI·SW 교육과 현장 중심 감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피오리움,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전북 거점 선정

‘달빛버스킹’ 연계 프로그램 선택
감성형 문화·관광도시 브랜드 강화

남원시 미디어아트 전시관 피오리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이 주최하는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5’ 전라북도 6대 거점 중 하나로 선정됐다.

올해 페스티벌은 ‘공존·나일을 위한 공공디자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남원 피오리움은 거점 프로그램으로 ‘달빛버스킹, 감정의 빛으로 물드는 도시의 밤’을 선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공디자인 실현, 도시를 감정으로 설계하더라’는 취지 아래 운영된다. 본 프로그램은 남원시 관광 협회와의 RE-PLUS사업인 ‘별빛달밤 달빛버스킹’과 연계해 운영되며, 남원이 보유한 감성형 야간 관광 자원과 공공디자인 실현을 접목한 감성 기반 참여형 도시디자인 프로젝트다.

기존 공공디자인이 공간의 미관 개선



남원시 피오리움이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5’ 전북 6대 거점 중 하나로 선정됐다. <사진=남원시>

이나 편의성 중심이었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사람의 감정이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참여자는 자신의 감정을 선택하고, 그것이 빛의 언어로 변환되어 도시에 남게 된다. 이를 통해 공공디자인을 단순한 시각적 기호가 아닌 도시와 시민 간의 정서적 인터페이스로 재해석한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남원시의 생활인구 정책인 ‘누리시민 제도’와 결합해,

정책과 디자인이 융합되는 실험적 구조를 보여준다.

남원 피오리움 관계자는 “전북 거점 선정은 남원이 가진 감성형 도시 브랜드와 시민들의 참여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감정을 매개로 한 이번 실험을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남원이 감성형 문화·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하반기 대학생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

학기당 최대 200만원 차등 지원
인재 유출 방지·교육 기회 보장

순창군 육전장학회가 하반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을 15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민선8기 순창군 보편적 복지정책의 핵심사업이다. 대학 생활비와 주거비 등 교육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인재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순창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순창군 출신 대학 재학생(만 40세 미만)으로, △순창 관내 초·중·고교 졸업, △관내 중학교 졸업 후 관외고등학교 졸업, △고졸 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된다.

단,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행

제 및 정규학제 초과 재학생 등은 제외된다.

지원시기는 대학 1학년 2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최대 7학기이며, 4년제 초과 대학은 최대 7학기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학기당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접수 시 신청서와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은 지난 15일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 농어촌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과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순창군>

순창군,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 협약 체결

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맞손’
청소년 체험·육성사업 개발

순창군은 지난 15일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 농어촌 지역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지원과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최영일 순창군수, 재명숙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 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농어촌 지역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청소년 활동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 청소년 교류 및 탐방활동 △진로탐방활동, 대학탐방활동, 진로드림캠프 등 청소년 체험활동 △청소년 육성 및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연구개발 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재명숙 사무총장은 “지속적인 교류와 지원으로 지역 간 격차 없는 청소년 정책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순창군 청소년들이 지역의 한계를 넘어 자신만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기업-주민 문화축제 ‘드라이브 인 페스타’

문화선도산단 사업 일환

완주문화재단이 오늘부터 19일까지 3일간 완주 둔산공원 일대에서 지역 상생형 문화축제 ‘2025 드라이브 인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일상에서 떠나는 가장 가까운 여행’을 주제로,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드는 완주 대표 문화축제로 기획됐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주민과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먹거리 부스, 완주 최대 규모의 프리마켓,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부스가 운영된다.

메인 무대에서는 △행복완주산단

여울림 콘서트 △근로자 가족가요제 △행복완주산단 라디오 주만DJ △완주 플레어리그 E스포츠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여자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축제를 선사한다.

현장에는 오토아트존, 드라이브존, MZ마켓존, 아드레날린존, 키즈캠프존 등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체험형 축제로 꾸며진다.

개막식은 18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별빛콘서트’에서는 18일 송하예, 존박, 크로스오버 그룹 카르디오가 무대를 꾸미며, 19일에는 가수 임창정이 피날레 공연을 펼친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천문과학관, 드론제전 현장 ‘과학 놀이터’ 운영

전시·포토존·영화상영·만들기 등

남원시 관광시설과는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기간에 맞춰 16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합스포츠타운 수영장 주차장에서 ‘남원시천문과학관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체험교실은 남원시천문과학관이 주관해 시민과 관광객이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즐기며, 지역 과학문화의 확산과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장에서는 플라이사이언스·씨아프 등 체험전시 50종, 과학버스 3대(사이언스 싸이퀵, 루체리움 사이언스 스쿨, 루체리움 스타카), 지름 9m 천체투영관 과학영화 상영, 지름 6m ‘달 풍선’ 포토존과 천체·기상기후 사진전 56점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만들기 체험도 마련된다. 특별체험으로는 별자리 머그컵 만들기, 우주 샌드아트 그리기, 행성 뱃지 만들기, 일반체험으로는 에어로켓 및 별자리판 만들기, 행성 팔찌 만들기, 글라이더 비행기 만들기, 외계인 마크라메, 드론체험 등이 진행된다. 현장에는 천문과학관 홍보부스도 설치되어 ‘화홍산수 태양필터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조선 명필 ‘창암·추사’ 특별전 개최

삼례문화예술촌서 내년 1월까지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제1전시관에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명필 두 인물, 창암 이삼만(蒼庵 李三晩, 1770~1847)과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의 예술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전 ‘창암 추사 재회’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완주군이 주최하고 미술관 솔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명화 고미술전시로, 내년 1월 4일까지 진행된다.

창암 이삼만은 평생을 전북 지역에서 활동한 서예가로, 말년에는 완주 상판면에서 거주하다가 작고했으며, 묘소 역시 완주 구이면 평촌리에 자리한다. 그는 해서·행서·초서·대자 등 다양한 서체에 능했으며, 특히 초서에서는 막힘 없는 ‘유수체(流水體)’로 이름이 높았다.

추사 김정희는 조선 후기 문신이자 서예가로 ‘추사체’를 완성하며 조선 후기 서예 예술을 대표했다. 이번 전시에는 창암 이삼만의 〈행서첩〉, 〈유수체 병풍〉 등 33점,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등 3점이 출품되며, 특히 추사의 작품이 완주군에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드론제전서
‘빅블’ 창업자 청소년 토크콘서트

남원시가 18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메인광장 야외 무대에서 ‘빅블’ 창업자 차누와 함께하는 청소년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인 도전 정신과 창의성을 주제로, 청소년들에게 실제 창업자의 경험을 통해 도전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첨단 AI 기술을 활용 창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솔로없는 도전은 없으니까’를 주제로 한 강연으로, 차누 창업자가 자신의 도전과 실패, 그리고 이를 통한 성장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한다.

2부는 ‘도전에 대한 자부심’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토크콘서트로, 참가 청소년들이 창업자와 직접 소통하며 도전의 의미와 가치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3부에서는 AI를 활용한 ‘나만의 발명품 이미지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AI 기반 이미지 생성 웹사이트에 자신이 구상한 발명 아이디어를 입력하여, 시제품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 결과물은 행사 현장 내 포토존과 QR 갤러리를 통해 전시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제22회 비봉면민의 날
성황리 개최 ‘소통 화합의 장’

완주군 비봉면이 16일 비봉면생활체육공원에서 제22회 비봉면민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대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 2부 민속·체육경기, 3부 한마음 노래자랑 등으로 구성돼 먼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군수 표창에는 △국외철 △김용순 △허정자씨가, 군의장상에는 △박형희 △유순상 △최쌍여씨가 선정됐다.

또한 먼민 표창으로 △국봉호(면민의 장) △고판철(봉사상) △이석도(효열상) △김봉구(장수상)씨가 수상했으며, 이외에도 △김경남(국회의원상) △국윤권(체육회 공로상) △김인수(감사상)씨가 각각 표창을 받았다.

2부 행사에서는 비봉면 체육회(회장 조한웅)의 주관으로 공굴리기, 줄다리기 등 전통 민속놀이와 체육경기가 펼쳐졌으며, 3부 한마음 노래자랑에서는 각 마을 대표 주민들이 무대에서 숨은 끼를 발휘해 행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직업교육훈련 수강생 모집
퍼스널컬러 전문가 등 이색 과정

순창군은 군민의 취·창업 기회 확대를 위해 하반기 직업교육훈련 과정으로 △퍼스널컬러 전문가 2급 과정 △큐브지도사 2급 과정 △웃음지도사 과정 총 3개 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군민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퍼스널컬러 전문가 과정은 뷰티와 스타일링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반영한 자격 과정으로 최근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큐브지도사 과정은 방과 후 지도사 및 교육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수강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웃음지도사 과정은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요양원 등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자격증으로, 중·장년층의 재취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은 순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모집기한은 28일까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균형 경제 교통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장수 계남면지사, 취약가구 대상 이불 세탁 봉사 실시

장수군 계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명호·진영순)는 계남실내체육관에서 위원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이불 세탁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협의체 위원들이 평소 돌봄 활동을 하며 확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해 추진됐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세탁시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이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장수군자원봉사센터의 세탁 차량을 지원받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1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겨울이불 2채씩 세탁했다.

위원들은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며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 후 깨끗하게 말린 이불을 다시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세탁 서비스를 받은 한 어르신은 “힘이 없어 겨울 이불을 직접 세탁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세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완주군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가정 대상 도자기 체험 운영

완주군 드림스타트가 최근 관내 취약계층 아동 가정 26명과 함께 소양면 일원에서 도자기 체험 등 ‘가족애 문화공감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된 체험형 가족 프로그램으로, 참여 가족들은 도자기 만들기 체험과 오성제·위봉산성 탐방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다지고 지역 문화자원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 도예가의 지도 아래 진행된 도자기 체험에서 직접 흙을 반죽하고 물레를 돌려 각자의 취향을 담은 작품을 완성했으며, 창의력과 성취감을 높이는 동시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협력하고 격려하는 소통의 시간이 됐다.

/완주=김명곤 기자

제42기 진안군 노인대학 졸업식 개최

“배움으로 꽃을 피우다”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회장 구 동수)는 16일 진안군 어르신일자리센터에서 제42기 진안군 노인대학 졸업식을 대학생, 내빈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졸업식에는 노인대학생 70명을 비롯해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옥 진안군의회의장, 전용대 전북도의원, 구동수 진안군노인회장, 전현준 대학장, 읍·면 노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증 수여 및 졸업식사, 축하, 격려사 순으로 진행했다.

졸업식에서는 대학생 70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모범 학생 표창으로 △군수상 이한진(남 77세), 박종국(남 76세), △진안군의회의장 이육임(여 78세), 박옥선(여 63세) △진안군노인회장상 김영애(여 86세), 황양태(여 86세) △대학장상 유영중(남 77세), 이진자(여 84세) △감사패 광경자 진안군여성자원활동센터 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졸업생 이한진(학생장)씨는 “노인대학에서의 배움은 제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얻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고 학우들을 만나서 웃으며 보내는 이 시간이 참 행복했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정읍 고부면 부녀회, 취약계층에 밑반찬 나눔

정읍시 고부면 부녀회(회장 유연숙)는 지난 15일 관내 저소득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사랑의 밑반찬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40여가구를 선정해 직접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면서 안부를 살피는 복지서비스로, 매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정읍시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수성동 행복 나눔 공유냉장고에도 일부를 기부해 나눔문화 확산에도 동참했다.

유연숙 회장은 “혼자서 끼니 해결이 어려운 분들에게 밑반찬을 지원해 영양 있는 식사를 하도록 하는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추진에 고부부녀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 달에 있을 김장김치 행사와 12월 불우이웃돕기 행사에도 참여해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 만들기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바이전주우수업체協, ‘GOGO 페스티벌’ 수익금 1천만원 기부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전주시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이전주우수업체’들이 지역경제 회복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한 ‘전주함께장터’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회장 전상문)는 16일 전주시장실을 방문해 ‘전주함께장터’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 4월 열린 이팝나무 장터와 지난달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2025 바이전주

GOGO 페스티벌’의 판매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기부는 지역기업이 시민의 소비로 얻은 성과를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이 지역으로 돌아간다’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 바이전주 우수상품 인증제는 시가 품질과 기술력을 인증한 지역 우수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46개 기업이 인증받아 활동 중이다.

/정혜민 기자



재경임실군민회, 임실군에 600만원 기탁

임실군이 재경임실군민회가 지난 8일 ‘2025 임실N치즈축제’ 현장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6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50여 명의 회원들이 심시일만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10여 명의 회원이 직접 축제 현장을 찾아 기탁식을 진행하며 고향에 대한 따뜻한 정을 나눴다.

재경임실군민회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임

실 출신 인사들의 대표 향우 단체인, 매년 다양한 교류와 화합 행사를 통해 고향과 향우회원 간의 유대를 이어오고 있다.

재경임실군민회 이종명 회장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이번 기부금이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W코레일유통 호남본부, 익산시에 식료품 전달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날 코레일유통(주) 호남본부는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에 1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물품은 쌀과 라면 등 생필품 위주로 구성됐으며, 익산행복나눔마켓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유식 본부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뜻깊은 나눔에 감사드리고,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나눔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순창군 농·축협, 순창장류축제 '대박 기원' 행사

NH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종철)는 지난 14일 관내 농협 조합장, 순창농협 고향주부모임 회원 등 20여명과 함께 군지부 텃밭정원에서 눈부신 성과와 행운을 상징하는 ‘커다란(大) 박’을 수확하면서, ‘제20회 순창장류축제’가 ‘대박’나기를 기원하는 축제 홍보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신종철 군지부장, 순창농협 김성철 조합장, 동계농협 양준섭 조합장, 구립농협 김순용 조합장 등이 참여해 주차장에 조성한 ‘텃밭 정원’에서 보름달처럼 둥근 ‘대박’과 여주, 파프리카 등을 수확하며 농업가치 확산을 위한 농심전심 운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직접 수확한 커다란 대박 등을 들고, 순창군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순창을 전통고추장민속마을과 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하는 ‘제20회 순창장류축제’의 성공을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변덕스런 가을 날씨! 가을철 영양 관리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
건조한 가을, 하루 8잔의 물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주세요!



과식 주의
신진대사의 활발한 활동과 풍성한 먹거리로 인한 과식에 주의하세요!



양질의 단백질 섭취
큰 일교차에 의한 면역력 저하에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추천해요!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력! 비타민과 무기질로 높여주세요!

〈一事一言〉



한국에도 ‘심층 국가(Deep State)’가 있다(2)

오태규

언론인

올해 한국 쪽 참가자 면면만 훑어봐도 왜 이런 의문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정권은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었지만, 참가자 대부분은 윤석열 정권 취향이거나 보수 성향 일색입니다. 일례로, 한국 대표 33명 중에 유명한 회장(노무현 정권 때 주일 대사·이명박 정권 때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신각수·윤덕민·박철희 등 주일 대사 출신이 4명이 들어 있습니다. 유 회장 외에 3명은 모두 보수 정권 시절에 대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윤석열 정권 때 임명된 박 전 대사와 진창수 전 오사카 총영사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불러 들어왔는데도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 때 대사를 지낸 사람들은 모두 배제됐습니다. 언론계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기자와 〈중앙일보〉 기자 출신 기업인은 들어갔지만, 진보 성향 매체에서는 〈한겨레〉 기자가 구색용으로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다른 분야도 구성원 편향이 대동소이합니다.

한국 쪽 한일포럼 참가자 구성이 보수·친일 성향 일색이 된 데는 유명한 회장의 책임이 큼니다. 형식적으로 5인 운영위원회의는 내부 논의 기구가 있지만, 회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무엇보다 회장 선임 과정부터 불투명합니다. 그는 2013년 공로명 초대 회장으로부터 회장직을 열렬통

팡 물려받은 뒤 10년 이상 장기 집권 중입니다. 한일포럼은 매년 정부로부터 억대의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하지만, ‘민간 자율’을 명분 삼아 정부의 간여를 피하고 그렇다고 내부의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제대로 밟지도 않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한 사람이 장기 집권하면서 포럼 운영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유 회장은 이념 성향과 정권과 친소를 떠나, 한일 관계에서 한국의 ‘대표’로 나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김연장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일하며 한일 과거사의 최대 현안인 강제 동원 문제에서 일본 전범 기업의 편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2019년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죄로 기소하면서 내놓은 공소장에 그가 강제 동원 소송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는 그런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회장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고, 포럼 안이나 돈을 지원하는 정부에서, 심지어 언론 쪽에서도 그의 회장 자격을 문제 삼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뻔뻔하게 버티고 주위의 사람들은 눈 감고 덮어주는 심층 국가 구성원의 ‘끈끈한 의리’를 이보다 잘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한일포럼 말고도 한일 간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나 조직 거의 대다수가 보수 편향, 친일 편향의 인사들에 포획되어 있습니다. 1982년 일본의 교과서 왜곡

파동을 계기로 1984년 한일 간의 문화교류를 증진·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대기업이 출자해 설립한 한일문화교류기금을 봅시다. 이 한기 초대 이사장이 숨진 1995년 이사장이 이사장 자리를 이어받은 뒤 지금껏 1인 회사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는 이명박 정권과 윤석열 정권에 친 일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했던 김태효 씨의 스승입니다. 그는 2013년부터는 이사장 자리를 유명환(79) 씨에게 물려줬지만, 회장 자리를 만들어 이사장 시절부터 30년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인 1999년 한일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한일문화교류회로도 비슷합니다. 현재 3기째를 맞고 있는데 정구중(80) 전 〈동아일보〉 동아닷컴 대표이사가 2009년부터 16년째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활동 전체 기간의 60% 이상을 한 사람이 떠맡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일 관계는 일부 보수·친일 편향의 노인네들이 과다 대표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수직에서 수평으로, 정치·경제 중심에서 문화·예술을 포함한 다방면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한일 관계의 창구를 틀어쥐고 있는 세력은 여전히 수직관계 속에서 정치·경제 쪽에 편향된 교류를 해왔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한국의 달라진 위상도 대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현상이 한일 관계나 외교·안보 영역에만 있는 문제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목도하고 있는 바처럼 외교뿐 아니라 검찰과 법원, 언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시대 변화를 대변하지 못하면서 계속 이전의 권력을 누리려는 기득권 세력이 강고하게 파리를 틀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어도 끄떡없이 권력을 누리는 이들 세력이야말로 심층 국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대 교체, 세력 교체와 함께하지 않는 상층부만의 정권 교체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를 없습니다. 진정한 정권 교체는 사회 곳곳에 숨어 활동하는 ‘그들만의 심층 국가’를 뿌리 뽑고 그들이 자라날 수 없도록 객도 작업까지 끝내는 것, 그래서 ‘모두의 국가’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겉이 아니라 속을, 머리 위가 아니라 발밑을 잘 살피는 용의 주도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의료와 식품의 융합, 전북의 미래산업으로 키우자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노년 인구의 급증과 함께 만성질환의 장기화, 의료비 증가, 건강수명 단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의료와 식품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 즉 ‘메디컬 푸드’가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영양 보조가 아니라, 질환별 환자의 회복과 치료를 돕는 맞춤형 식이 요법으로서, 의료와 식품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신산업의 잠재력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구체적 비전을 제시한 곳이 바로 전북이다.

최근 한 포럼에서 전북연구원 정세영 석좌연구위원은 ‘Medical Food, 왜 전북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전북이 메디컬푸드 산업의 최적지임을 역설했다. 그는 메디컬푸드를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과 명확히 구분하며, 의료인의 감독 아래 질환별로 설계·처방되는 ‘영양 치료 수단’으로 정의했다. 환자의 회복을 향상과 재원 기간 단축 등 임상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각별하다.

정 연구위원이 전북을 메디컬푸드 산업의 중심지로 지목한 이유도 명확하다. 전북은 원료 재배, 연구개발, 제조, 수출까지 하나의 밸트를 갖춘 유일한 지역이다. 약용작물 기반의 풍부한 농업자원,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전북농업기술원 같은 연구·산업 인프라, 새만금 RE100 기반의 친환경 산업단지, 군산항 수출 인프라까지, 메디컬푸드 산업의 가치사슬을 완성할 모든 조건이 집약돼 있다. 전북형 메디컬푸드 전략은 단지 산업

하나를 키우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농업과 바이오, 의료와 식품을 하나로 엮는 융합산업 혁신모델이다. 고령화 시대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농가 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수출 산업화 등 파급효과가 막대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북자치도의 전략적 역할이 결정적이다. 우선, 메디컬푸드 산업을 단순한 연구 과제로 두지 말고 ‘전북형 미래 전략산업’으로 공식화해야 한다. R&D-산업-정책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학연 병원을 연결하는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전북 특산물 기반의 기능성 소재를 표준화하여 세계 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품질 인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행정은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으로 산업의 토대를 다지고 민간 기업은 기술혁신과 글로벌 진출을 통해 산업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이제 전북은 그린바이오퍼를 넘어 레드바이오, 즉 의학·건강 중심의 바이오산업으로 확장할 전환점에 서 있다. 메디컬푸드는 바로 그 교차점에서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이다. 단순한 ‘식품산업’이 아닌, 국민 건강을 지키는 ‘치료보조산업’으로서, 미래 고령사회의 핵심 먹거리로 자리 잡을 것이다.

전북이 메디컬푸드 산업의 국가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이는 단지 지역경제의 성장만이 아니라 국가적 건강복지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다. 농생명과학, 식품과 과학이 융합된 전북형 메디컬푸드 전략이 한국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길을 열기를 기대한다.



오늘의시

가족의 힘 / 류근

애인에게 버림받고 돌아온 밤에
아내를 부둥켜 안고 영영 운다
아내는 속 깊은 보호자답게
모든 걸 안다는 듯 등 두들기며
내 울음을 다 들어주고
세상에 좋은 여자가 얼마나 많은지
세월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따뜻한 위로를 잊지 않는다
나는 더 용기를 내서 울고
아내는 술상을 봐 주며 내게 응원의 술잔을 건넨다
이 모처럼 화목한 풍경에 잔뜩 고무된 어린 것들조차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노래와 울동을 아끼지 않고
나는 애인에게 버림받은 것이 다시 서러워
밤늦도록 울음에 겨워 술잔을 높이 드는 것이다
다시 새로운 연애에 대한 희망을 갖자고
술병을 세우며 굳게 다짐해 보는 것이다

시인 약력 : 1966년 경북 문경 출생. 중앙대 문창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등단했다. 2010년, ‘상처적 체질’을 첫 시집으로 출간했다. 대학 재학 중 쓴 노랫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이 김광석에 의해 불렀다. 저서로는 ‘함부로 사랑에 속아주는 버릇’, ‘싸나희 순정’, ‘사랑이 다시 내게 말을 거네’, ‘상처적 체질’, ‘어떻게든 이별’ 등이 있다.

/정읍소방서장
이상일

| 독자광장 |

노인 안전, 재난 대응의 새로운 과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약 1,051만 명으로 전체의 20.3%를 차지하며, 이는 안전 환경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고령자는 화재와 응급 상황에서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작은 사고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화재 사망자의 56%가 60세 이상 이었고, 2023년에도 65세 이상이 43.4%를 차지해 고령층의 화재 위험이 인구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심정지 등 응급환자 역시 절반 이상이 고령층으로, 응급 이송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는 소방 안전과 응급의료 체

계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방 중심의 관리, 정밀한 대응 체계, 교육·문화적 기반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주거환경 전반의 화재 안전 관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단독주택은 노후화된 전기·가스 설비로 인해 취약하므로 노후 설비 교체와 정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반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화재 확산 위험이 커 자동화재탐지·스프링클러 등의 설비 점검과 방화문·비상구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은 대피 시간이 길어 피난안전구역 확보와 유도 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며, 시력·청력이 저하된 어르신을 위한 시각·음성 보조 설비와 무장애 대피 통로, 저층부 안전 주택 보급 같은 정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고령화 사회에 맞는 맞춤형 생활 안전망 설계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응급 대응 체계의 정밀화가 필요합니다.

고령자는 응급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119안심콜 제도의 홍보와 활용을 강화해 건강정보 등 록을 확대하고 현장 대응의 정확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구급대원에 대한 치매 환자 대응과 노인 특화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복지·소방이 연계된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생활 거점의 응급 상황에 신속히 공동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예방·교육의 내실화와 과학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교육과 훈련은 VR·AR 기반 체험형 프로그램과 거동 불편 어르신 맞춤형 대피 시나리오 훈련 등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합니다. 또한 훈련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전주향교소장완영책판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시대 - 조선시대

- 지정일 - 2005년 12월 15일

-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문화재열전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3.10.13 944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종양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8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872-0308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8-6049	
송전지시-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축제는 풍성하게, 관광은 쾌적하게! 확 달라진 정읍의 가을

하반기 관광·산림·문화 사업 본격화

시민 삶의 질 향상·지역경제 활성화 동시 견인

울긋불긋한 단풍이 물드는 가을의 문턱에서 정읍시가 새로운 도약의 준비를 마쳤다.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관광, 산림, 문화·시설 등 다방면에 걸친 굵직한 사업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시민의 삶에 풍요를 더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지속가능한 힐링 도시'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읍시는 내장산과 구절초라는 독보적인 자연 자산을 중심으로 힐링과 체험이 공존하는 관광 콘텐츠를 확산하는 한편, 산림휴양 및 문화 기반을 촘촘히 확충하며 정읍만의 색깔을 담은 도시 브랜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장금이파크 정식 개관 △내장산 단풍철 행락질서 확립 △내장산 자연휴양림 시범 운영 △제18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 개최 △임산물체험단지 차항다원 활성화 등이다.

각 분야의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외부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고, 문화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를 통해 정읍시 전반의 경제·문화적 활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편집자 주)

가을의 절정, 내장산과 구절초... 정읍 대표 축제로 관광객 맞이

정읍의 가을은 단풍과 구절초, 두 가지 색으로 물든다. 대한민국 대표 단풍명소인 내장산은 올해 10월 24일경 첫 단풍을 시작으로 11월 5일경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시는 가을 단풍 성수기를 맞아 내장산을 찾는 수많은 인파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품격 있는 관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28일간 '2025년도 내장산 단풍철 행락질서 확립 대책'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

다. 특히 관광객이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16일간은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시청 각 부서와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등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일평균 209명, 총 4172명의 인력을 투입해 관광 안내부터 교통 통제, 쓰레기 처리, 위생 및 안전 관리까지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친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불법 노점상, 호객 행위,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3無 캠페인(호객·바가지·불법판매 금지)'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또한, 내장산 상가번영회와의 협력을 통해 상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상생하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정읍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내장산의 붉은 단풍이 절정에 이를 때, 정읍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새하얀 구절초가 은은한 향기를 뿜낸다. 2006년 조성 이후 매년 50만 명 이상이 찾는 가을꽃 여행의 명소, 구절초 지방정원에서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 '제18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맛있는 정원(자연요리체험)', '작가의 정원(반려식물 만들기)', '치유의 정원(나들이 요가)' 등 정원을 테마로 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방문객들에게 건강과 치유의 시간을 선물한다.

축제의 흥을 돋울 화려한 공연도 준비돼 있다. 10월 18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개막 축하공연에는 가수 장민호, 박창근, 김태연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해 가을밤을 수놓는다. 주말에는 개그맨 김명희&정범균, 윤택, 최양락&팽현숙 부부가 출연하는 '명사 토크콘서트'가 열려 꽃밭을 배경으로 관객과 유쾌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품평회를 통해 엄선된 지역 마을과 업체들이 참여해 구절초 두부김치, 산채비빔밥, 정읍 한우 등 정읍의 맛을 선보이는 먹거리 장터는 축제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시는 축제장 진입도로의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개화 상황을 안내하는 등 방문객 편의를 위한 세심한 준비도 마쳤다.

이야기가 있는 힐링 공간... 체류형 관광의 새 지평을 열다

정읍시는 스쳐 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며 치유하는 '체류형 관광 도시'로의 도약을 꿈꾼다. 그 중심에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장금이파크'와 숲속 힐링 거점 '내장산 자연휴양림'이 있다.

9월부터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한 '장금이파크'는 음식과 치유, 이야기가 어우러진 체험형 복합문화테마공간이다. 2017년부터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총 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된 이곳은 산내면 장금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장금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방문객들은 의녀 대장금의 정신을 계승한 약선요리, 발효음식 등 치유 음식을 직접 맛보고, 정읍 특산 약재를 활용한 쌍화차 만들기 등을 체험하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아름다운 산내면의 자연경관 속에서 특별한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은 장금이파크만의 독보적인 매력이다. 오는 10월 1일 열리는 정식 개관식은 장금이파크가 정읍 문화관광의 새로운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힘찬 신호탄이 될 것이다.

도시를 벗어나 온전한 쉼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내장산 자연휴양림'도 내년 정식 개장을 앞두고 10월부터 11월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용산동 일원 49ha 부지에 조성된 휴양림은 산림휴양관 1동과 숲속의집 9동을 우선 선보인다. 시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이용객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읍시민과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결정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산림휴양관 1만 원, 숲속의집 3만 원~5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사용료로 이용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내년 숲

속의집 2동과 오토캠핑장 조성이 완료되면,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산림복지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정읍시는 기존의 관광 자원에 새로운 인프라를 더하며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임산물체험단지 내 '차항다원'의 성공 사례는 이를 증명한다. 작년 대비 1.7배 이상 증가한 9400여 명이 방문한 차항다원은

기존 임산물 차와 음료에 더해 커피 메뉴를 추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방문객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내장산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느리게, 깊이있게 세상을 만나다



전북타임스新聞